

## 아프가니스탄, 대통령선거와 정국전망

### □ 국가 현황

- 면적은 한반도의 3배인 647,500km<sup>2</sup>, 인구는 2,850만명, 인종은 아리안 계통인 파슈툰족(40%), 타지크족(25%), 하자르족(15%), 우즈벱족(8%) 등이며 인구의 99%가 이슬람교를 믿고 있음.
- 수도는 인구 350만명 규모의 카블이며 전체 인구의 70%정도가 농업과 목축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국토의 대부분이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경작가능지는 총 면적의 12%에 불과함.
- 수십년 간에 걸친 내전과 소련의 침공, 탈레반의 폭정, 미국과의 전쟁 등으로 국민소득 170달러의 빈곤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02년 9월 상주 대사관을 개설함.
- 아프간은 과거부터 중앙아시아의 교차로로서 동서양의 주요 육상 연결지점에 위치하고 있어 많은 내전과 외침을 겪음.
  - 18세기 중반 파슈툰족이 동으로는 인도 무굴제국을 격퇴하고 서로는 페르시아로부터 하라트를 탈환하여 이슬람 제국을 건설하고 1772년에 카블로 천도함.
  - 19세기부터 왕권쟁탈의 내전이 확산됐으며 인도제국을 보호하려는 영국과 이를 막으려는 러시아의 주도권 싸움의 격전지가 됨.
  - 영국과의 3차례 전쟁을 통해 1919년 독립하여 왕정이 40여년 이

어졌고, 1973년 다우 전 총리는 쿠데타로 공화정을 수립했지만 1978년 암살되고 아프가니스탄은 구 소련의 침공을 받게 됨.

- 1989년 소련군 철수 이후 무자헤딘이 친소정권을 전복시키고 이슬람 공화국을 선포했으나 다양한 군벌과 부족의 내전에 시달림.
- 1994년부터 파키스탄의 군사적 지원을 배경으로 탈레반 운동이 시작됐고 탈레반은 정권을 획득하여 이슬람 근본주의 정책을 펼침.
- 탈레반 정권은 9.11 테러의 배후인 오사마 빈 라덴의 인도를 거부하다 미국의 공격으로 2001년 11월 붕괴되었으며 이후 하미드 카르자이 대통령이 임시정부를 맡고 있음.

#### □ 대통령 직접선거, 사상 최초 시행

- 아프가니스탄에서는 10월 9일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직접선거가 실시되고 하미드 카르자이 현 임시정부 대통령을 포함한 총 16명이 입후보한 상태임.
- 개표가 완료되려면 2~3주가 소요되고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면 결선투표로 이어지나 현재 카르자이 현 대통령의 압도적인 승리가 예상되고 있음.
- 주요 대선 후보는 하미드 카르자이, 압둘 라시드 도스툼, 모하메드 모하키크, 마수다 자랄, 아흐마드 사 아흐마드자이 등이며 선거운동 기간동안 반군세력에 의한 테러전으로 유세에 어려움을 겪음.
- 카르자이: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파슈툰족 출신으로 가장 유력한 대통령 후보이며 반탈레반 운동을 조직했고 영어에 능통하여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지지를 얻고 있음.

- 압둘 라시드 도스툼: 우즈베크 출신의 장군으로 소련에 협조하다 항전했고 초기에 탈레반을 지원하다 반탈레반 세력과 연합하는 등의 전력 때문에 비판을 받고 있으나 북부 우즈베크족의 지지를 받고 있음.
- 모하메드 모하키크: 중부지역 소수민족 시아파 하자르족을 이끌고 있으며 하자르 부족 및 파키스탄의 하르 난민의 지지를 얻고 있음.
- 마수다 자랄: 카불 출신으로 유일한 여성후보자로서 아프간 인구의 65%이상인 여성층의 지지를 기대하고 있음.
- 아흐마드 사 아흐마드자이: 이슬람 강경파로 총리를 지냈으며 무자헤딘 지도자인 압둘 라술 사야프의 동맹세력이며 반미성향임.

## □ 향후 정국 전망

-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6일 카르자이의 부통령 후보인 아흐마드 지아 마수드가 탈레반 배후의 폭탄공격을 받았으나 사망위기를 모면하는 등 선거기간 동안 각종 테러로 인해 대선 후에도 후유증이 남을 전망이다.
- 카르자이의 당선이 확실시되나 대표적 군벌세력인 압둘 라시드 도스툼은 선거에서 패배해도 신정부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하여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음.
- 따라서 정권의 정통성 시비가 정국 불안의 심각한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. 부족법이 수백년간 지배해온 나라임을 감안할 때 국민의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당분간 혼란을 겪을 전망이다.
- 그리고 카르자이도 군벌의 신정부 참여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

도스툼이나 모하키크같은 군벌 세력이 선거에서 패배한 후 내전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음.

- 이를 극복하기 위해 대통령 당선자는 우선 같은 부족 중심의 다수당 구성에 노력하고 미국의 입장을 고려하며 정국을 이끌어갈 충분한 역량을 길러야 할 것으로 보임.

전문연구원 고희원 (☎3779-6686)

E-mail : koheewon@koreaexim.go.kr